

# 나의 콩나물 사랑 편린(片鱗)

김 석 동

소속 : 작물시험장 석좌연구관,  
(사)한국콩연구회 회장  
전화 : (031) 290-6695  
E-mail : kim2101@rda.go.kr



콩나물에 풍부히 들어있는 비타민C와 관련한 전쟁비사 한 가지를 소개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러·일전쟁 때 여순성(旅順城) 공방전은 양쪽이 도합 10만의 사상자를 냈고 115일이나 계속되면서 겨울철이 되었다. 겨울철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지 못한 러시아군은 사상자의 태반이 괴혈병으로 죽어갔는데 일본군이 성을 함락하여 보니 창고마다 콩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지만 콩나물을 생산하여 먹을 줄 모르는 러시아군 인지라 결국은 괴혈병으로 인한 패전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마침내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순성(旅順城)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콩을 이용하여 콩나물을 생산 일본 병사에게 공급한 덕이라 하니 콩나물이 만든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는 여러분에게 맡긴다.

한편 11세기말부터 13세기말에 걸쳐 무려 2백여 년 간이나 지속되었던 십자군전쟁에서 이슬람교도에게 빼앗긴 기독교의 성지를 되찾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종교적인 열정과 기사도정신으로 무장된 십자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는데도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원정군의 영양부족과 괴혈병 탓이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한다. 만약 이때 병사들의 식탁에 콩나물을 통하여 충분한 야채를 공급하였다면 전쟁의 승패는 어찌되었으며, 오늘날 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중동의 끊임없는 유혈비극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되새겨 보게 하는 대목이다.

##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십자군전쟁에서 십자군이 패전한 이유는 콩나물을 못 먹은 탓이다.

1994년 당시 대한두채협회의 당면한 최고의 숙원사업은 협회를 사단법인화 시키는 일이었고 그 일에 노심초사 중이었다. 그 이유는 농림부와 당시 보사부(現 보건복지부)가 협회

의 사단법인 등록을 각각 꺼려하여 농림부에서는 콩나물이 가공식품이니 보사부로 미루고, 보사부는 보사부대로 콩나물 자체는 1차 가공된 식품이긴 하나 생산과정으로 보아 농산물이니 농림부로 미루고 하던 시기였다.

이 때 총리실에서 행정조정 업무를 담당하던 김종철 사무관으로부터 ‘콩나물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나?’를 놓고 필자(당시 작물시험장 전작1과장 김석동)에게 유권해석을 해왔다. 그리고 필자는 아래와 같이 콩나물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여 총리실의 김종철 사무관에게 보내주고(1994. 10. 25, 11: 40, FAX NO 02-737-0105) 농림부에 대한두채협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우리의 일상 말중에 ‘콩나물을 기른다’ 또는  
‘콩나물을 재배한다’라고 하며  
‘콩나물을 가공한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콩나물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나에 대한 견해**

(1) 일상언어 습관에서 본 정의

우리가 일상 하는 말에 있어 ‘콩나물을 기른다’ 또는 ‘콩나물을 재배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콩나물을 가공한다’라고는 하지 않는 언어습관으로 볼 때 콩나물은 농산물이며 분명히 재배되는 것이다.

(2) 식문화(食文化)로 본 정의

콩나물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신선한 찬감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콩나물이 살아있는 채소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공품’ 아닌 ‘농산물’이다.

(3) 생산과정으로 본 정의

콩나물의 생산과정에서 재배방식은 채소류의 수경재배 또는 그 전단계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주)풀무원 같은 회사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자동화된 생산 형태도 채소류의 싹기름 재배양식과 동일한 작업이며, 채소의 육묘과정과도 유사한 단계를 거치므로 콩나물은 가공식품이 아니라 농산물로 재배되는 것이다.

또한 재배되는 과정중이나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의상 가공식품이라 할 수 없으며 영어로 표현 할 때도 콩나물은 ‘bean sprouts’라고 하여 생명력

을 가지고 있는 재배된 농산물로 보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대량의 싹기름 채소를 환경이 제어된 공장시설에 의하여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수만 평 규모의 싹기름 생산시설이 첨단농업의 신기술로 등장하여 생산효율, 상품화율 및 규격품 공정생산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콩나물의 생산도 마땅히 농업의 일부분, 특히 채소작물로 다루어져야 된다.

#### (4) 정부의 문건으로 본 정의

당시 경제기획원 고시 한국 표준산업분류, 보사부 고시 기본식품 관리요령, 관세청 수입 식품 기준 등이 콩나물을 농작물인 채소류로 분류하고 있다(작성자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전작1과장 농학박사 김석동, 1994. 10. 25). **●**

[원예대사전]에 '두채', '콩나물'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콩나물은 이젠 누가 뭐래도 [원예농산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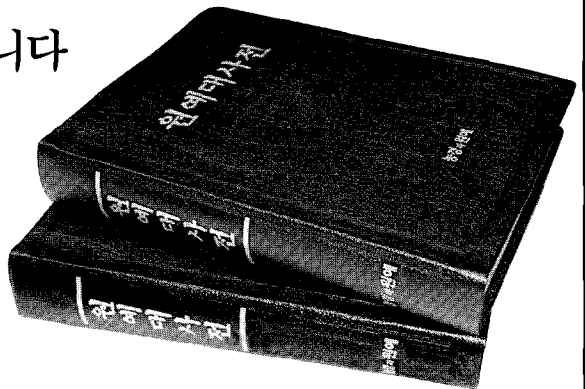
2003년

# 원예대사전

## 원예농업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원예학 분야 석학과 전문가 104명이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여 원예농업 분야의 전체 수록용어 5,000개, 해설용어 3,500개, 영문용어 5,600개를 수록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는 원예농업인들에게 실제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원예관련 기술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올바르게 얻을 수 있는 지침서로서 훌륭한 샘플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판형 4×6배판 \* 분량 760쪽 \* 가격 8만원



전화주문시 (사)대한두채협회 회원임을 알려주시면 10% 할인된 72,000원에 발송해 드립니다.

**구입문의** (031) 421-8112

농업종합미디어그룹을 지향하는  
**농경과원에**

대한민국 농업포털  
**디지털에그로**  
digitalagro.com